

추향제 이모저모



시조 태사공 추향제를 마치고 초헌관 권태강, 아헌관 권오정, 종헌관 권정하, 찬자 권준택 등 제관들이 시조 묘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찬자 권준택, 초헌관 권태강, 아헌관 권오정, 종헌관 권정하.



남중공 추향제가 봉행되기 바로 직전 남중공 단소 앞에서 제관들이 도열해 있다. 600여명의 족친들이 운집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초헌관 권세욱, 아헌관 권정택, 종헌관 권정길(오른쪽부터).



추향제 역사상 처음으로 드론을 통해 하늘에서 추향제의 모습을 촬영했다. 평창공 묘소 앞에까지 참여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가운데 추향제가 봉행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평창공과 학림공 사적비 제막식



권해욱 회장이 평창공과 학림공 사적비 간림은 만사지탄이지만 100만 족친의 마음이 모아지고 권옹렬 고문의 1억 기탁으로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졌다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옹주 능동성역화 추진위원이 평창공과 학림공 사적비의 건립 과정에 대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능곡회원들이 분정판과 숙정(肅靜)이라는 기(旗)를 앞세우고 제물(祭物)을 운반하며 추향제가 봉행되는 시조 묘소로 향하고 있다. 뒤이어 도표를 입은 참여자들이 천등산을 오르는 모습은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



부산종친회 시조 태사공 및 남중공 추향제 참배 부산종친회(회장 권성웅)는 올해도 어김없이 시조 추향제 및 남중공 추향제에 대형버스 1대를 대절하여 참석하였다. 특히 부녀회원들이 안동권문의 말담게 분홍색 한복을 예쁘게 차려 입고 참석하여 수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많은 족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추향제 제례 전 과정을 주관하고 있는 권정창 제례위원장



평창공 학림공 사적비 제막식이 끝나자 추향제에 참석한 족친들은 대회에서 준비한 2020년도 달력과 기념타월을 받아 갔다. 달력은 권혁홍 대양그룹 회장이 후원했고, 기념타월은 권옹렬 고문이 후원했다.



안동 능곡회원 추향제 제수(祭需) 운반 봉사 추향제가 봉행되는 아침, 제례위원장의 주관 하에 능동제사에서 분장을 하는 동안 단채로 보라색 조끼 유니폼을 입은 능곡회원 30여명이 나타났다. 능곡회원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추향제에 진설할 제수(祭需)를 추향제가 봉행되는 시조 묘소로 운반했다. 제관들은 능곡회원들의 뒤를 따라 이동했다. 시조 태사공 추향제는 능곡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운반한 제수를 진설한 후 엄숙하고 질서 있게 봉행할 수 있었다. 능곡회원들은 매 춘추향제 때마다 제수를 시조 묘소까지 운반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추향제 봉행 후 산신제를 지내는 모습

인류사에는 정사와 야사와 가족사가 있습니다
가족사는 족보이고 한국은 족보의 첨단선진국입니다

추밀공파 양촌문충공계
창수공족보를 만듭니다

창수공은 양촌 문충공의 4남 안숙공의 손자로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감내에 산소가 계신
광흥창수 휘 역憶을 계파조로 하는 1만5천 자손입니다

이번 족보는 한글판한자병기 전산보로서
책자는 첨단출판체재로, 전산판은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열람되는 영상보로 병행제작됩니다

수단[수록단자]의 마감은 2020년 4월 30일이고
수단비[등록비]는 창수공종회에서 지원하여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족보발간사무실: 우:08756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95 천우빌딩 503호
지하철 2호선 봉천역 4번출구에서 150미터. 팩스겸용전화 070-4320-7776
e-mail 5081kwon@naver.com. 간사 권병관 010-8869-2867. 종보사 02)723-4480

안동권씨 창수공종회장 권병돈

권율장군 묘소 탐방

권해욱 회장은 지난 11월 6일 오전 11시 권오록, 권태인 고문 그리고 권행완 편집국장과 함께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하고 있는 권율장군 묘소(경기도 기념물 제2호, 1972년 5월 4일 지정)를 방문했다. 황점숙 권율장군 묘역 문화해설사는 영의정 권철 묘소 등 묘역 전반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권해욱 회장은 권율장군 묘소를 참배하면서 장군님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안동권문의 후손들이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 화합하고 일차단결하여 안동권문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훈령으로나마 지켜봐 달라고 기원했다. 올해 초 대회에서는 권율장군의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 100만 안동권문을 대신하여 1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건의서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다는 이순신장군, 육지는 권율장군”이란 말과 같이 권율장군과 이순신장군은 풍전동화와 같은 조국을 지켜낸 공을 인정받아 선무1등공신으로 똑같이 책봉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순신장군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소는 무려 8개나 확인되고 있지만 권율장군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소는 아직까지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권율장군의 역사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권율장군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안동권문에서라도 치밀하게 연구하여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권율장군 묘소 참배를 마친 후 인근에 자리한 권오록 고문의 가족 묘원을 방문하여 참배한 후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구봉근 선조 이야기에서부터 전쟁과 피란 등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도 안동권씨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온 과거 등을 회상하며 탐방을 마쳤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행완 편집국장, 권오록 고문, 권해욱 회장, 권태인 고문(왼쪽부터)



권오록 고문 가족 묘원